

바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

-고린도전서 7:12-16을 중심으로-

박성호*

1. 들어가는 말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졸혼’(卒婚)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인생에서 일곱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칠포세대’¹⁾를 넘어 N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한지도 이미 오래 되었지만, 그 출발점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三拋世代)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고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가정’의 포기가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성서와 가정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날 가정의 의미도 이전보다 더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염려하는 가운데에서도 1인 가구가 엄연히 한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혈연관계의 가족은 아니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예: 셰어하우스)으로 ‘혼밥·혼술’의 외로움은 달랠 수 있고, 대형마트는 1인 살림에 적합한 소규모의 상품을 진열한지 오래다. ‘싱글 라이프’의 선언이나 예찬도 더 이상 낮설지 않다.

‘가정’을 재정의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린도전서 7장의

*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신약학

1) 포기해야 하는 일곱 가지 요소들은 연애, 결혼, 출산(삼포) + 집, 경력(오포) + 희망/취미, 인간관계라고 한다.

가르침은 한편으로 유효성과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큰 ‘도전’일 수 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분명히 ‘싱글’이었지만(7:7, 8),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엄연한 ‘가정’으로 전제하면서 결혼·이혼·독신과 결혼생활에서의 성적 결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의 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진술에 내포된 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 때문이며, 그 낙관주의가 변화된 상황에서도, 아니 변화된 상황에서 아말로 더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곳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자인 ‘혼합 결혼’에 대하여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이다(7:12-16). 독특한 점은 이 권면이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일차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이다.²⁾ 이로써 구원에 대한 바울의 적극적이고도 낙관적인 관심이 구원이 주된 이슈가 되는 실제 상황이나 신학적 논증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실천적·일상적 문제와 윤리적 권면의 맥락에서도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즉 구원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시각은 그의 사상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뜻이다. 본 논문은 고린도전서 7:12-16의 배경과 문맥, 무엇보다도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바울이 구원

2) ‘낙관주의’(樂觀主義)는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앞길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세계관 또는 인생관’을 말한다. ‘세상과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세계관 또는 인생관’ 혹은 ‘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을 있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으로 보는 태도’를 가리키는 ‘낙천주의’(樂天主義)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민중서림 편집국 편,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제5판 [서울: 민중서림, 2001], 415, 418). 이에 의거하여 ‘낙관주의’라는 개념은 여기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바울이 구원론적 진술들로 영속적 구원을 일관되게 선포한다는 점에서 ‘낙관(주)의적 구원론’이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본문이 비구원론적 맥락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원론적 진술을 담고 있는데다가 무게중심을 ‘낙관주의’에 두기 위하여 ‘구원론적 낙관주의’를 선택하였다. 바울의 서신 중 고린도전서에서 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 곧 그가 선포한 영속적 구원 또는 구원의 확실성이 구원론적 문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유은걸, “고린도전서의 종말론적 구원” 『신약논단』 25 (2018), 769-794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었다.

론적 낙관주의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신자의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 점이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 배경과 문맥

2.1. 고대의 가정과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

대개 가정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설명되지만, 이제는 자녀가 없는 경우 혹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형태도 현대적 의미의 가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대의 상황은 다르다. 고대에서 가정은 일가권속의 대가족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계가족, 노예(들)과 그 가족(들),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가축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가정의 기능 또한 자녀 양육과 종교, 경제, 정치 영역을 포괄하였다.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경향에 상응하게 가정에서는 남성 가장의 권위(*pater familias*)가 절대적이었다.³⁾

가정은 일상적 활동과 종교의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가정의 안녕과 부를 가져다주는 신(들)에 대한 숭배와 헌신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이것은 많은 경우 식사와 연결되었다. 조상신 숭배 전통도

3) 최혜영, “신약성서 안에서의 여성과 가정: 혈연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새 가정으로,” 『기독교 신학과 사상』 50 (2004), 273-274. 당시의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기본구조는 세 가지의 관계, 곧 ‘남편-아내 / 아버지-자녀 / 주인-노예’다. 남성 가장이 상업과 정치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다면, 아내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 이것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아내들도 밖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상류층에서는 여자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Wolfgang Stegemann and Ekkehard W.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고대 지중해 세계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손성현, 김관임 역 (서울: 동연, 2008), 569-593을 참조하라.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한 가정 안에서 진행된 종교 활동은 다양한 신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었다.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의 신(들)을 숭배할 의무가 있었지만, 가정 내의 종교 활동이 일상적 의식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일도 가능했다고 한다.⁴⁾

초기 기독교의 경우⁵⁾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가족’(familia dei)이라는 신앙공동체로 확장되었고, 그 첫 번째 형태는 가정 교회였다. 가정교회는 한 가정의 거주 공간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예배와 만찬을 나누었던 공동체를 가리킨다.⁶⁾ 이곳은 공동체에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고 제자 양육과 선교활동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통솔의 골격 역할을 할 수 있었다.⁷⁾ 한 가정의 가장이 개종하면 가정 전체가 개종할 가능성이 높았고, 더 나아가 가정교회로 확대되거나 주변의 가정과 함께 연합하여 가정교회를 형성할 잠재성도 커졌다. 반면, 가장의 배우자만이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에는 한 개인의 개종에 따른 가정 내 갈등의 소지가 늘 잠재해 있었다. 가장의 개종을 통한 가정 전체의 개종을 말할 때 주로 그 가장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pater familias), 초기 기독교는 여성이 가장(mater familias)이나 안주인(domina)으로서 교회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모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⁸⁾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교회가 집안에 있는 가정교회였

4) 플루타르크(Plutarch)와 같은 고대의 작가들이 결혼한 여성의 의무로서 남편이 믿고 있는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을 강조하고 자신이 따르던 낯선 제의와 미신을 일체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Moralia I 140D)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Caroline J. Hodge, “Married to an Unbeliever: Households, Hierarchies, and Holiness in 1 Corinthians 7:12-16,” *HTR* 103 (2010), 7-13 참조.

5) 가정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김지철, 『고린도전서』,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17-325 참조.

6) 행 1:13; 2:46; 5:42; 12:12; 16:15, 31-32; 17:6; 18:1-8; 롬 16:3-5; 고전 1:14-16; 16:19; 문 2 등.

7) 최혜영, “신약성서 안에서의 여성과 가정,” 274-275.

8) 신약성서에서 가정교회를 주관한 여성들로 추정해볼 수 있는 이들은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행 12:12-17), 루디아(행 16:12-15), 브리스길라(행 18:2-3; 롬 16:5; 고전

고, 바울 당시만 해도 직분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논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결혼과 가정 이해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특별한 상황(들)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이며,⁹⁾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여성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대해 이는 바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가정 교회를 이끌거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성들이 과부였는지,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두었는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고린도의 경우 가정교회(들)의 숫자나 규모 또한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50-100명쯤!).¹⁰⁾ 그렇다면 교인들의 다수를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볼지라도 7장의 맥락에서 이혼이나 혼합 결혼 문제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너무 높게 잡아서 안 될 것이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금욕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나 성적 결합 기피 또는 이혼 요청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당사자의 수 또한

16:19), 루포의 어머니(롬 16:13), 율리아(롬 16:15), 네레오의 자매(롬 16:15), 올림바(롬 16:15), 글로에(고전 1:11), 압비아(문 2), 늬바(골 4:15)다. 그 외에도 마리아(롬 16:6),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와 비시(롬 16:12)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를 바울의 조력자 이상의 주도적 역할을 한 여성 지도자들로 생각할 수 있다. 최혜영, “신약성서 안에서의 여성과 가정,” 277-279 참조.

9) Christina Urban, “Die Rollen der Familienglieder,” Klaus Scherberich, ed., *Neues Testament und Antike Kultur, vol. 2: Familie-Gesellschaft-Wirtscha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19: “그(=바울; 필자의 보충)는 자신의 임박한 재림 기대로 인해 가정 윤리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과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논의(고전 7장)도 가족의 삶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적 삶의 기독교적-종말론적 규정을 시야에 두고 있다.”

10) 바울서신들(롬 16:21-23; 고전 1:11, 14, 16; 16:17)과 사도행전(행 18:7-8)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식구들을 모두 고려하면 최소한 50명쯤 되었을 것이며, 온 교회가 가이오의 집에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롬 16:23; 고전 14:23)로 볼 때 100명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Petr Pokorný and Ulrich Heckel,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Seine Literatur und Theologie im Überblick*,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239 참조.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았을지 모른다.¹¹⁾

2.2. 결혼, 이혼과 독신에 관하여(고전 7장)

바울은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준다(1절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¹²⁾). 주제 자체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의 엄격한 가르침(5:9; 6:9-10 참조)에 대한 오해의 결과로 몇몇 교인들이 부부관계에서도 금욕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수 있다.¹³⁾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핵심은 결혼을 해도 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결혼생활에서의 성적 결합의 실천을 둘러싼 문제다.¹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11)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7장 전체가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김관임, “바울은 이혼을 허락하였는가?[고전 7:1-16 연구],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7 [2004], 34-46[인용 포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인용되는 성경구절은 기본적으로 『개역개정』을 따른다.

13) Erich Fascher,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1. Teil: Einführung und Auslegung der Kapitel 1-7, 3rd ed., ThHNT VII/1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4), 179. 5:9 이하로부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여기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반면 문병구, “종말론적 실존의 결혼과 성에 관한 질서: 고전 7장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한국신학논총』 6 (2007), 36-37, 39에 의하면, 1b절은 바울의 금욕적 입장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 논제의 의미를 가진 그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Andreas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HNT 9,1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58의 지적대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4) 공동체 안에서 성적 방종이 큰 문제가 되었던 5-6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성적 금욕주의의 문제가 별안간 등장하는 것은 다소 놀라울지 모른다. 그러나 성적 방종과 엄격한 금욕주의는 세상과 육체를 경시하는 공통된 뿌리 위에서 자라며 현재적 종말론이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이기도 하다. 7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주제의 변화는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린도 교인들 일부에게서 볼 수 있던 금욕주의적 태도는 상당히 엄격해서 현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두라”(2절)는 말에서 바울이 결혼생활을 성적 결합의 차원에서만, 즉 다소 원시적이고 감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함으로써 결국 결혼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 결혼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결혼생활과 성적 결합이 아니라 금욕주의적 태도가 쉽게 음행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바울은 음행을 피하는 일이 결혼생활의 유일한 의미이자 목표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도를 목적으로 한¹⁵⁾ 상호 합의에 따른, 시간적으로 제한된 금욕(“분방”)만이 허용되며,¹⁶⁾ 이 예외조차도 반드시 다시 합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럼에

-
- 15) 유대교에서는 기도와 토라 연구를 위하여 남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거가 금지되었다(Paul Billerbeck and Hermann L. Stra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vol. 3: Die Briefe des Neuen Testaments und die Offenbarung Johannis, 6th ed.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5], 372 참조). 이때 여자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에서 금욕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는 ‘납달리의 유언’(Testament of Naphtali) 8:8-9는 흥미로운 병행구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결합이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부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반면, 성적 결합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하며 금욕이 특정 종교 행위의 사전 조건이 된다는 생각(출 19:15)이 이곳의 배경이 된다는 설명(Hans Lietzmann, *An die Korinther 1/2*, ergänzt von Werner G. Kümmel, 5th ed., HNT 9 [Tübingen: J. C. B. Mohr, 1969], 30)과 관련하여 본문은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도”는 제사와 무관하다. Hans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1th ed., KE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142의 견해대로 여기서는 유대교적 관습의 영향만이 보인다 (Fascher,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181; Friedrich Lang, *Die Briefe an die Korinther*, 17th ed., N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90도 참조). Wolfgang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Teilband: 1Kor 6,12-11,16, EKK VII/2 (Solithurn and Düsseldorf: Benziger Verl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68-69는 이 영향마저 부정한다. 바울은 금욕 자체나 기도를 위한 금욕이 아니라 그것의 예외적 경우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16) 이로써 바울이 부부의 분방, 곧 성적 결합의 유효를 허용하는 조건은 명확하다. 서로 합의해야 하고, 정해놓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 결합과 기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7절)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기본적으로 독신생활을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여기고 있다. 물론 그는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독신생활 자체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며, 그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은사 수여자인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바울 자신처럼 혼자서도 행복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육체적 욕망의 절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결혼을 하고, 이미 그 부부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좋으며 심지어 당연하다. 결혼은 독신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위 ‘보통의 경우’(Normalfall)다.¹⁷⁾ 따라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말에는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동의하고 있을 뿐이다.¹⁸⁾

바울은 이러한 제한적 유보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시험은 음행(2절)을 염두에 둔 듯하나,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어렵다. 바울은 성적 욕구 자체를 “절제 못함”으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절제 못함”을 사람을 속아매는 위험요소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절제가 쉽게 “절제 못함”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적 욕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17)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3; Hans-Josef Klauck, *1. Korintherbrief*, NEB.NT 7 (Würzburg: Echter Verlag, 1984), 51.

18) 여기서 답변의 처음부터 병행구조를 통하여 남자/남편과 여자/아내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2-4절). 여자/아내는 단지 남자/남편의 성적 결합의 대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기도를 위한 일시적인 분방의 경우(5절)에도 전적인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서로”[ἀλλήλους]와 “합의상”[ἐκ συμφώνου]). 따라서 배우자의 존재/현존에 따른 자유의 제한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3절과 4절의 ὁμοίως δὲ καὶ 참조).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위계와 무관하다. 3절은 4절과 함께 교차대구의 형태를 이루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여자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다(10, 16절). 성적인 요구의 주도권을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4b절 진술은 4a절의 내용과 달리 고대 또는 주변세계에서 유비를 찾기 어렵다. 바울에게 성(性)과 관련하여 남자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전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결혼생활에

자신의 기본원칙을 밝힌 일반적 진술에 근거하여 바울은 세 유형의 구체적인 대상들에 이를 적용한다(8-16절). 첫 번째 적용 대상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이며(8-9절),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들(10-11절), 세 번째 대상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이다(12-16절). 그 후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말했던 바를 바울은 다시금 일반화한다(17-24절). 거기서 7장 전체의 핵심이 드러나기도 한다. 곧 각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례 여부 및 노예 신분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앞의 내용으로 보면, 독신일 때 부름 받은 사람은 계속 독신상태로 있고, 이혼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지내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일반적인 진술을 구체적인 경우, 곧 독신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적용한다(25-40절).¹⁹⁾ 7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종합적인 진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서술한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믿음의 자유를 결혼생활이나 독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율법주의에 종속시키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7장에 대한 개관이나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4-5, 10, 15장과의 비교가 보여주듯이,²⁰⁾ 전체적인 내용은 직접적으로 구원론적 문맥 속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바울의 구원론적

서의 성적 결합의 목적으로 자녀 출산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눈에 띈다.

- 19)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25절, 12절도 참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10절도 참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말에 권위가 없거나 10절의 권위에 비해 그 무게가 떨어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40절)했다. 바울이 주의 말씀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하고 있는 점이나 굳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고 있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7장에서 결혼·독신·이혼·재혼에 관한 확정된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도 한다. 주의 명령과 바울의 말이 동일한 권위와 영감을 지닌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신약연구』 9 (2010), 244-245을 참조하라.
- 20) 4-5, 10, 15장에서의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유은걸, “고린도전서의 종말론적 구원,” 770-790을 보라.

낙관주의가 나타나는 진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의 부부관계(‘혼합 결혼’)과 구원론적 낙관주의 (7:12-16)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1절)와 같은 생각에서 시작된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금욕주의적 태도는 다방면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권장하지만(7절), 동시에 결혼을 ‘보통의 경우’로서 인정하며(2-4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절제할 수 없거든”(9절) 결혼할 것을 충고한다. 반면,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혼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거나 “절제할 수 없거든” 같아선 배우자와 다시 화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배우자²¹⁾와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²²⁾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8-10장에서 다루는 우상제물의 섭취 문제도 이와 연관된 일면을 엿보게 해준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은 주의 명령에 따른 절대적 이혼 금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²³⁾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쪽에서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21)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이방인으로 한정된다. 유대인은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6:6; 10:27; 14:22, 24은 ἄπιστος가 분명하게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혼합 결혼’의 존재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항상 한 집안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행 16:31-34)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곳과 벤티전 2:19; 3:1-2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다.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결혼 생활을 중단하기 원할 경우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결국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바울의 충고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바울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다.²⁴⁾

23) 이와 관련해서는 장홍길, “신약 성경에서의 이혼: 예수와 바울의 입장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16 (2000), 154-174도 참조.

24) 그런 점에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쪽에서의 태도(15a절)는 본래부터 바울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부수적으로 언급한 일종의 ‘삽입구’(11a절 참조)라 하겠다(아래 해당구절에 대한 주석 참조). 반면, James K. Elliott, “Paul’s Teaching on Marriage in 1 Corinthians: Some Problems Considered,” *NTS* 19 (1972-73), 225에 의하면, 12-14절은 이혼을, 15절은 별거를 다룬다. 즉 15절과 함께 새로운 소단락이 시작되고 16절은 15절에 속하면서 바울이 별거를 허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따라서 15-16절은 12-14절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Sakae Kubo, “1 Corinthians VII. 16: Optimistic or Pessimistic?,” *NTS* 24 (1978), 543도 12-14절과 15-16절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12-14절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민감하고 까다로우며 그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심지어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를 원해도 관계를 끊으려는 이들이라면, 15-16절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별거를 원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에 근거해볼 때 그렇게 구분하여 불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Hodge, “Married to an Unbeliever: Households, Hierarchies, and Holiness in 1 Corinthians 7:12-16,” 22-25는 혼합 결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그 관계들을 거부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혼합 결혼을 문제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애초부터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정체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삶, 그에 적합한 성적 태도 등에 무관심했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이혼 요청을 수용하라는 말(15a절)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신자 아내들의 상태를 암시해주는 것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은 새로운 신앙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전혀 문제가 없거나 심지어 유리함을 발견했을 것이다. 집안은 다양한 종교적 행위와 공간을 포함할 수 있고 다양한 지위의 사람들이 일상적 의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자 남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메시아가 집안의 신들에 포함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신들은 더 많은 보호와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신들의 혼재는 부부 모두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호지(Hodge)는 150년 후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러한 ‘관용적 남편’의 문제를 불평했던 일(*Ad Uxorem* 2.5.1)을 비교 사례로 언급한다. 말하자면, 전통적 종교 행위들과 신생 종교인 기독교 사이의

바울이 다른 두 가지 경우(8-9절과 10-11절)보다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⁵⁾ 반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남자/남편보다 그런 사람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자/아내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다소 막연하면서도 당시의 차별적인 남녀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해볼 수 있으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여자/아내들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혼합 결혼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웠다거나 이혼을 통해 삶의 경제적 토대를 상실할 더 큰 위험에 처했다고 보기에는 본문이 전해주는 바에 분명 한계가 있다.²⁶⁾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본문은 권면(12-13절), 첫 번째 근거(14절), 예외적인 사례(15ab절)와 두 번째 근거(15c-16절)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바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가 드러나는 곳은 두 번에 걸친 근거 설명에서다.

3.1. 권면(12-13절)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12a절), 이어지는 부분(12b-13절)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듯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배우

경계가 바울(이나 테르툴리아누스)가 전형적으로 이해한 것보다 더 유동적이었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교회 바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점차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5a절을 바울의 주된 관심사로서 지나치게 부각한 결과다. 바울에게서 아무리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타협과 절충주의의 뉘앙스가 강한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했는지 의문스러우며, 호지의 추측이 바울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묘사로서 적합한지도 검증이 필요하다.

25)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3.

26)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91.

자는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인 사람들을 가리킨다.²⁷⁾ 결혼을 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고 말할 때 바울은 동사의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두 번 모두 ἔχει), 이로 볼 때 그는 이미 결혼한 그리스도인-비그리스도인 부부를 전제하고 있다. 즉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비그리스도인을 배우자로 맞을 예정인 그리스도인의 경우²⁸⁾는 고려되지 않으며, 이미 부부가 된 두 비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경우인 것이다.²⁹⁾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10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와 달리,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진술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힌다(“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자신의 판단과 예수에게 소급되는 명령을 구분하면서 권위의 차이와 함께 진술 자체의 무게 감의 차등을 읽어낼 필요는 없다.³⁰⁾ 바울은 항상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며, 그 권위가 수신자 교회들에서 유효함을 전제한다. 혼합 결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즉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부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συνευδοκεῖ), 그리스

27) 김지철, 『고린도전서』, 288;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239; Charles K. Barrett,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6판, 국제성서주석 35 (서울,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198; Archibald Robertson and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2nd ed., ICC (Edinburgh: T. & T. Clark, 1978; org. ed. 1914), 141.

28)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239.

29) Raymond F. Collins, *First Corinthians*, Sacra Pagina Series 7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265, 270; William F. Cook (III), “When Only One Spouse Believes: Hope for Christian Women in Mixed Marriages,” *JDFM* 2:2 (2012), 18.

30) Barrett, 『고린도전서』, 198.

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그 배우자와 갈라서면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바울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결혼관계의 유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에서도 바울은 그 배우자의 다른 신앙을 어떤 형태로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관계의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합성 동사는 상호 간의 동의와 만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행 22:20; 롬 1:32도 참조).³¹⁾

비그리스도인 아내를 가진 그리스도인 남자(직역: 형제)에게 유효한 것(12b절)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바울은 믿는 여자를 전제하는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절과의 병행,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는 목적어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바울이 앞에서 “갈라서다”(χωρισθῆναι[10c절], χωρισθῆν[11a절])는 말을 여자에게, “버리다”(ἀφίεναι[11b절])는 표현을 남자에게 구분하여 썼다면, 여기서는 그 어조가 조금 더 강한 “버리다”(ἀφίετω)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동사의 사용으로부터 의미의 차이를 전제할 필요가 없으며, 바울은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남녀-병행구조를 유지한다.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 불신자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편에서 먼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²⁾

3.2. 첫 번째 근거(14절)

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인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되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제시된다. 곧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31) Robertson an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1;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5.

32) Barrett, 『고린토전서』, 199.

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해지다’(ἀγιάζω)는 보통 신자를 비신자로부터 구별하는 특징을 가리킨다. 즉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이다(ἅγιοι).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이 성도인 남편 또는 아내로 “말미암아”(ἐν) 믿지 않는 배우자도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완료시제(+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ἡγιασται). 한 마디로, 비그리스도인 아내 또는 남편도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로 인해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며, 그 상태는 지속된다.³³⁾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개종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 상응하게 대할 것을 요청한다.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두드러지게 ‘대상적인’(dinglich)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거룩함’은 믿음의 고백(과 세례) 없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1절)라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금욕주의적 생각은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뿐만 아니라 아직 한 편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위 ‘혼합 결혼’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성적 결합 시 그 배우자의 부정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불경건함(=거룩하지 않음)의 전염성에 대한 유대 교적 사고에도 상응한다.³⁵⁾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오히려 정반대

33) Barrett, 『고린도전서』, 199-200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성별된 존재로 여겨지는 신자의 ‘거룩함’과는 다른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16절 참조). Lang, *Die Briefe an die Korinther*, 93-94도 이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용례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말한다.

34)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6; Klauck, *1. Korintherbrief*, 52. 그래서 Lietzmann, *An die Korinther 1/2*, 31은 성적 결합을 통한 거룩함의 전이를 생각하기도 한다.

35) 접속으로 인한 부정과 관련해서는 레 7:21; 11장; 12:5; 13:11, 46; 14:40, 45; 15:26; 민 9:6; 암 7:17; 행 9:43; 10:14, 28; 11:8 참조. 이것은 대개 이로 인한 제의적 부적합성과 연관된다.

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14절).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클레멘트1서 46:2 참조). 신자의 정결함이 불신자의 부정함을 능가하기에 둘의 연합은 순결하고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즉 ‘대상적’ 이해가 아니라 ‘관계성’이 중요하다. 남녀 병행구조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전치사 ἐν은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가 성화가 일어나는 영역이며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 영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³⁶⁾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레 21:8 참조)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불신앙을 능가하기 때문이다(8:4; 10:26 참조).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울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³⁷⁾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후자에 의해서 더 이상 세상의 권세(들)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세상의 권세들을 극복하기 때문이다(롬 5:15-20 참조).³⁸⁾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 어떠한 힘이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정하게 됨을 염려하여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갈라서려는 것은 악덕을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종국에는

36) Robertson an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2.

37)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7.

38) 결혼 자체가 거룩함에 이르는 예식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Yonder M. Gillihan, “Jewish Laws on Illicit Marriage, the Defilement of Offspring, and the Holiness of the Temple: A New Halakic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7:14,” *JBL* 121 (2002), 711-744은 합법적 결혼으로 배우자의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할라카를 바울이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거나 합법적 파트너가 되게 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

세상을 등지는 것과 같은 태도이며, 바울은 이를 이미 비판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5:9-10). 그러한 태도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³⁹⁾ 더구나 거기서는 죄의 문제가 핵심이었지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죄가 아니다. 신자들이 거룩함의 상실과 관련하여 염려해야 하는 것은 불신 배우자와의 성적 결합이나 접촉 혹은 동거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게 된 구원의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⁴⁰⁾

바울의 논증은 심지어 둘 사이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된다.⁴¹⁾ 만약 그리스도인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 비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라면(ἐπει ἄρα)⁴²⁾, 결국 그들의 자녀도 깨끗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자녀 또한 현재 거룩하기 때문에(ὄν δὲ ἄγια ἔσται) 둘의 관계(=가정)는 물론이고 그 관계의 한 축이 되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도 거룩하게 된 것이다(디모데의 사례 참조, 딤후 1:5; 행 16:1-2).⁴³⁾ 바울은 자녀들로부터 다시 부모에게로 향하는 논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⁴⁴⁾

39)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7;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06.

40) Horst Balz, “ἄγιος-ἀγιάζω-ἁγιασμός-ἀγιότης-ἁγισσύνη,” *EWNT* I (1980), 47.

41) “너희 자녀”는 혼합 결혼 부부의 자녀를 가리킨다(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8; Fascher,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187; Lang, *Die Briefe an die Korinther*, 94).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07도 여기에 동의하나, 그리스도인 부부의 자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42)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8(각주 36)은 이를 비현실화법에 대한 압축적 표현으로 본다.

43) Barrett, 『고린도전서』, 200.

44) 바울의 진술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은 왜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종종 유대교의 개종자 세례에 대한 암시로 답변되곤 하였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대교 규정(Strack and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3*, 374 참조)에 상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편을 가진 아이는 결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예레미야스(J. Jeremias)의 설명(Joachim Jeremias, *Die Kindertaufe in den ersten vier Jahrhunder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8], 52-56)은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우선, 신약시대에 유대교 개종자 세례가 시행되었는지 불확실하다. 또한 그 세례와의 연관성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기독교 개종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만 해당되는데, 이는 본문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바울이 말하려는 바는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와 그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도 거룩하며, 혼합 결혼 부부의 자녀가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기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그 배우자도 신자인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14절을 종합해보면, ‘거룩함’은 ‘대상적인’ 또는 ‘물질적인’ 현상보다는 ‘관계성’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와의 동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자녀들의 세례 여부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어떠한 추론도 가능하지 않다. 바울이 강조하려는 바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부정하게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여 ‘혼합 결혼’을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존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정체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⁴⁶⁾ 바울에게서 믿음

않는다(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07-108 참조). 더구나 바울은 자녀의 부모 중 한 쪽만 정결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유대교 개종자 세례와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다(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8[각주 35] 참조).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자녀의 세례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만일 그 자녀가 세례를 받아야만 거룩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결국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 자녀가 부정했음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것은 바울의 의도와 방향을 벗어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유아세례나 기타 자녀에 대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증거를 얻으려는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김지철 『고린도전서』, 289; Robertson an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2와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6의 지적은 옳다.

45)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6.

46) 혼합 결혼의 경우, 해당 가정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신(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바울이 혼합 결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특이하다.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는 ‘타종교 전통에 대한 관용’(8:4-13; 10:23-33)이 여기서도 전제되고 있는 듯하다. Hodge, “Married to an Unbeliever: Households, Hierarchies, and Holiness in 1 Corinthians 7:12-16,” 23(각주 82)도 이 점을 지적한다.

을 통하지 않은 구원은 생각할 수 없으며, 대리적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14절을 구원론적 진술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원론적 낙관주의를 함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3. 예외적인 사례(15ab절)

‘혼합 결혼’에 대한 바울의 충고는 명확하다.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남편이 신자인 배우자와 헤어질 의향이 전혀 없다면 믿는 남편 또는 아내 역시 성별됨의 문제나 관계의 부정함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비그리스도인 아내 또는 남편이 바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은 남성형(ὁ ἄπιστος)으로 되어 있지만(15a절), 앞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남녀-병행구조와 곧바로 이어지는 15b절(ὁ ἀδελφὸς ἢ ἡ ἀδελφή)과 16절 진술로 볼 때, 바울은 실제로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를 모두 생각한다. “갈라거든”(χωρίζεται)의 시제(현재)는 11a절의 경우 처럼 이미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⁴⁷⁾ 바울은 이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갈라서는 것을 허락한다(15a절). 바울에게 중요한 점은 신자 편에서 먼저 이혼을 결정하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는 이 점과 관련하여 전혀 율법주의적으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15b절). 즉 주의 이혼 금지 명령은 융통성 없는 율법이 아니기에(10-11절도 참조) 그/그녀에게는 아무런 강제적 짐도 지워지지 않으며 이혼에 대한 신앙적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11a절과 달리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와 갈라서지 말거나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⁴⁸⁾ 그렇다면

47)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09(각주 326).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15b절)는 표현은 이혼에 따르는 결과들과 연결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반대하거나 마치 결혼생활이 이론적으로 지속되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3.4. 두 번째 근거(15c-16절)

이어지는 15c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바로 앞의 내용인 15ab절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그 관계를 계속 지키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갈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화평”은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부부관계의 유지를 거부하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아무런 다툼 없이 떠나보내는 경우를 전제한다.⁴⁸⁾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접속사 $\delta\epsilon$ 가 아니라 오히려 $\gamma\acute{\alpha}\rho$ 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화평”을 ‘내적 평안’으로 축소시켜 이해할 위험이 크다.

15c절은 15ab절이 보여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12-14절이 말하고 있는 ‘보통의 경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남자와

48) 바울의 말에서 재혼 허락을 추론해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혼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마가복음 10:11-12은 이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거기서는 ‘혼합 결혼’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243는 바울의 답변과 암시가 없지만 11a절에 비추어 볼 때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9) Robertson an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3; Klauck, *1. Korintherbrief*, 53; Lang, *Die Briefe an die Korinther*, 95; Kubo, “I Corinthians VII. 16: Optimistic or Pessimistic?,” 544.

여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자인 남편 또는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는 것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그 화평을 위해서 연합(의 관계)을 유지해야 한다.⁵⁰⁾ “화평”이 결혼생활/부부관계의 유지를 가리킨다는 뜻이다. 만일 전치사 ἐν이 εἰς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살전 4:7 참조),⁵¹⁾ “화평”은 심지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목표가 되며(17절; 그 외에 롬 8:6; 14:17; 빌 4:7도 참조),⁵²⁾ 이 점은 “화평”을 단순히 ‘내적 평안’의 의미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이 경우에는 특히 접속사 δὲ의 반어적 의미가 보다 강하게 부각되며, 15ab절은 11a절처럼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는 일종의 ‘삽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⁵³⁾ 요컨대, 15c절은 바로 앞의 예외적인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14절에 이어서 12-13절에 대한 두 번째 근거에 해당한다.

접속사 γάρ로 시작되는 16절은 15c절 진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고찰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12-15절 전체와 연결된다. 특히 15c절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16절의 해석 방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도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16절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15c절의 의미도 분명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16절은 낙관적·긍정적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관적·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50) 김지철, 『고린도전서』, 290-291; Barrett, 『고린도전서』, 201-202;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10-112; Collins, *First Corinthians*, 267, 272;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7.

51) Friedrich Blass and Albert Debrunner,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bearbeitet von Friedrich Rehkopf, 16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168, 177-178(=BDR §206,1와 218)은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52) Barrett, 『고린도전서』, 201;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11-112;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7.

53) Barrett, 『고린도전서』, 201.

가능하다.⁵⁴⁾

우선, 16절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비관적·부정적 체념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15c절은 [원인 접속사(γάρ)]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ab절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인 남편 또는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이끌 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 요구대로 갈라서는 것이 하나님에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뜻이다.⁵⁵⁾ 그러나 필자는 $\tau\acute{\iota}\ \omicron\iota\delta\alpha\varsigma\ \epsilon\acute{\iota}$ 에 대한 낙관적·긍정적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⁵⁶⁾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⁵⁷⁾

첫째,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tau\acute{\iota}\ \dots\ \omicron\iota\delta\alpha\varsigma\ \dots\ \epsilon\acute{\iota}$ 에 집중하여 동시대의 문서들에서 이를 낙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사 구절들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먼저 70인역의 사무엘하 12:22; 요엘 2:14; 요나 3:9; 에스더 4:14와 요셉과 아세넷 11:12에서 $\tau\acute{\iota}\varsigma\ \omicron\iota\delta\epsilon\nu\ \epsilon\acute{\iota}$ 를,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에픽테투스(Epictetus)에게서 16절과 동일한 2인

54) BDR §375.

55) Robertson an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144; Klauck, *1. Korintherbrief*, 53; Lang, *Die Briefe an die Korinther*, 95; Kubo, “I Corinthians VII. 16: Optimistic or Pessimistic?,” 544; Cook, “When Only One Spouse Believes: Hope for Christian Women in Mixed Marriages,” 18(각주 10); Hodge, “Married to an Unbeliever: Households, Hierarchies, and Holiness in 1 Corinthians 7:12-16,” 19(각주 69).

56)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241; Barrett, 『고린토전서』, 202-203. 김지철, 『고린토전서』, 291; F. F. Bruce, *1 and 2 Corinthians*,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1971), 70;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12; Collins, *First Corinthians*, 272;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7도 낙관적 해석을 따른다.

57) 16절의 내용을 실제적인 구원의 가능성으로 전제한다면, 즉 그 의미를 낙관적으로 해석한다면, 15c절과 15ab절의 연결은 내용적으로 어색하다.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갈라서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아내 또는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낙관적 진술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15c절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이 구절이 15ab절보다는 12-14절과 연결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더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볼 경우, 16절 역시 내용적으로 (15ab절이 아니라) 12-14절과 연결되는 것이 낫다.

칭 단수 형태 $\tau\acute{\iota}\ \omicron\iota\delta\alpha\varsigma\ \epsilon\acute{\iota}$ 가 나오는 세 개의 예시(Dissertationes II 20,28-31; 22,31; 25,2)를 소개하였다.⁵⁸⁾ 예레미야스는 자신이 수집한 구절들을 통하여 한 가지 문법상의 공통점, 곧 16절과 비슷한 형태가 사용될 때 $\epsilon\acute{\iota}$ 가 ‘아마도’의 의미로 번역됨으로써 이어지는 구문이 낙관적·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였다(Homeros, *Odyseia III* 216도 참조).⁵⁹⁾ 여기에 부르하드(C. Burchard)가 여섯 개의 구절들을 추가함으로써 힘을 실어 주었고(토비트 13:8; *L.A.B.* 9:6; 25:7; 30:4; 39:3; *Jos. Asen.* 19:7),⁶⁰⁾ 다시 한 번 $\tau\acute{\iota}\varsigma\ \omicron\iota\delta\epsilon\nu\ \epsilon\acute{\iota}$ 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의 의미를 가진 ‘아마도’로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⁶¹⁾

-
- 58) Jeremias, “Die missionarische Aufgabe in der Mischehe (1. Kor. 7,16),” J. Jeremias, *Abba: Studien zur neutestamentliche Theologie und Zeitgeschichte: Mit 4 Bildtafel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293-296. Johannes Weiss, *Der erste Korintherbrief*, 9th ed., KE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org. ed. 1910), 183도 참조하라.
- 59) Jeremias, “Die missionarische Aufgabe in der Mischehe (1. Kor. 7,16),” 296-297(+각 주 12)에 의하면, 모든 헬라 교부들이 이 해석을 따랐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테오피락토스(Theophylactos)로서, 그는 $\tau\acute{\iota}\ \omicron\iota\delta\alpha\varsigma\ \epsilon\acute{\iota}$ 를 $\iota\sigma\omega\varsigma$ 로 번역하고 있다 (*Migne Patrologia Graeca* 124).
- 60) Christoph Burchard, “Ei nach einem Ausdruck des Wissens oder Nichtwissens: Joh 9:25, Act 19:2, I Cor 1:16; 7:16,” *ZNW* 52 (1961), 74-81. 부르하드는 동일한 해석이 16절 외에 요 9:25; 행 19:2; 고전 1:16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81-82). 거기서도 $\epsilon\acute{\iota}$ 는 앞이나 들음의 동사 후에 나와서 단순한 종속 문장을 이끌며, 불확실성이 아니라 상위 문장의 주어를 거부하는 사실들을 말한다.
- 61) Kubo, “I Corinthians VII. 16: Optimistic or Pessimistic?,” 541-544는 예레미야스가 제시한 구절들 중에서 어떤 것도 실제로 16절과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70인역과 요셉과 아세넷 11:12은 $\tau\acute{\iota}\varsigma\ \omicron\iota\delta\epsilon\nu\ \epsilon\acute{\iota}$, 에페테투스의 두 곳은 $\pi\acute{o}\theta\epsilon\nu\ \omicron\iota\delta\alpha\varsigma\ \epsilon\acute{\iota}$, 한 곳은 $\pi\acute{o}\theta\epsilon\nu\ \omicron\upsilon\acute{\nu}\ \epsilon\acute{\iota}\sigma\eta$, 요셉과 아세넷 19:7은 $\sigma\upsilon\ \gamma\acute{\iota}\nu\omega\sigma\kappa\epsilon\iota\varsigma\ \epsilon\acute{\iota}$). 이중적 질문의 형태를 띠는 16절과 유사한 예는 70인역의 전도서 3:21뿐이며, 이로 볼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쿠보에 의하면, 바울은 15ab절에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면하며 15c-16절은 그에 대한 이유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며(15c절), 믿지 않는 배우자를 회심/개종시키겠다는 동기의 실현 여부는 특히 그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12-14절과 15-16절의 대상 및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용적으로 바울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는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 편에서 가급적 그 ‘혼합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위한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가 (가능한 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기 배우자를 실제적인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그 배우자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선교적 상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사회의 제도들과 구조들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삶과 마음의 평안을 수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검증과 선교적 의무에 도움이 된다.”⁶²⁾

셋째, 여기서 사용된 동사(σώσεις)는 선교 용어이기도 하다(1:18, 21; 9:22와 롬 11:14 참조).⁶³⁾ 바레트는 14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믿음에 의한 ‘구원’(롬 5:9-10 참조)과 다른 종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로마서 11:14나 고린도전서 9:22에 나타나는 의미, 곧 ‘그리

바울이 12-14절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민감하고 까다로우며 그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심지어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를 원해도 관계를 끊으려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그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제거하면서도 너무 단순하게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4절의 해석을 차치하고서) 그들에게 결혼관계를 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반면, 15-16절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별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관계의 합법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이것의 가장 주된 동기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회심/개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놓아 줄 이유를 찾아야 했고, 그것이 15c와 16절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16절의 문맥 안에서 두 종류의 대상을 구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체적인 흐름은 한 쪽이 그리스도인인 혼합 결혼 부부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며, 15ab절에서 잠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편에서의 이혼 요청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언급한 후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온다!

62)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112.

63)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7.

스도교적인 신앙과 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다’ 혹은 ‘개종하다’는 의미의 선교용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가 이러한 가능성과 소망을 품고 불신자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⁶⁴ 반면, 한 가정의 아내를 개종시킴으로써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여 새로운 교인들을 모으기 위한 초기 기독교의 전략이 사용된 사례로 보는 맥도날드(M. Y. MacDonald)의 견해⁶⁵나 ‘선교적 과제’라는 에레미야스의 표현⁶⁶ 자체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베드로전서 3:1-2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딤후 2:5; Justinus, *Second Apology* 2.1-6도 참조). 비록 바울이 이 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일종의 선교 전략을 고려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우리는 그의 낙관적인 진술로부터 선교적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기초를 도출할 수 있으며, 한 세대 후의 서신인 베드로전서는 실제로 그 작업의 결과를 보여준다.

넷째,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표현하면서, 그런 이에게는 멸망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롬 8:1).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범죄 문제가 그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전 5장 참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강조하여 신자의 구원 여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신학적 관점(예를 들면 마 25:31-46; 히 6:4-6; 10:26-31; 12:16-17; 계 20:11-15)에서 볼 때 당사자의 마지막 운명이 회회적·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경우에 직면해서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다름’은 그의 신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이론적·논리적 다름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자신의 행위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신자에게 출교를 명령하면서

64) Barrett, 『고린도전서』, 202.

65) Margaret Y. MacDonald, *Early Christian Women and Pagan Opinion: The Power of the Hysterical Wo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89-195.

66) Jeremias, “Die missionarische Aufgabe in der Mischehe (1. Kor. 7,16),” 297-298.

도 최종적인 멸망에 대한 선언을 유보하며 끝까지 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고전 5:5)⁶⁷⁾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그 종말을 긍정적 방향으로 열어놓는 경우(롬 9-11장)가 좋은 예시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구원론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16절의 진술 또한 이에 상응한다.

다섯째, 16절을 낙관적·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어지는 17절 진술과 모순된다는 지적⁶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17절을 시작하는 *εἰ μή*는 대개 반어적 의미로 사용되며,⁶⁹⁾ 심지어 *ἀλλά*나 *πλὴν*을 대신하기도 한다.⁷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곳 17절과 달리 항상 부문장을 이끄는 것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이 불변화사가 문장의 처음에 왔다는 것은 앞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없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⁷¹⁾ 사실, 17-24절은 7장 안에서 1-16절 및 25-40절과의 일반적 문맥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주제를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digressio*).⁷²⁾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바로 17절(“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와 15절(“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의 연관성에서 발견된다.⁷³⁾ 만약 일종의 반복적인 후렴구처럼 들리는 17, 20, 24절의 내용을 현재 결혼 상태 또는 독신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16절에 대한 낙관적

67) Sung-Ho Park,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WMANT 1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5), 259-265.

68) Conzelmann,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49, no. 48; Cook, “When Only One Spouse Believes: Hope for Christian Women in Mixed Marriage,” 18, no. 10.

69) BDG §376,1.

70) BDG §448,8; 449,2.

71)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70.

72) Lindemann, *Der erste Korintherbrief*, 168-169.

73) 그렇다고 해서 17-24절을 12-16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단락으로만 볼 수는 없다. 17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18절이 내용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이다.

해석과 17절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17절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4. 나가는 말: 의미와 전망

본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9:19)이라는 바울의 구원론적 목표를 다시금 엿보게 해주며, 그것이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고 또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목표로 하듯이, 바울 역시 구원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어디에서도 숨기지 않는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죄를 지어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출교를 당해야 하는 믿음의 형제조차도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5:5)이듯이, 여전히 믿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인 배우자로 인하여 이미 거룩하게 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또한 그 가능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14절). 유대인이자 열심 있는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익숙했을법한 부정함의 전이 사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신자의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띈다. 사실, 신자가 가정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바울의 말은, 예레미야스의 표현대로, “신약성서가 결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술에 속한다”⁷⁴⁾고 할 수 있다. 16절에 대한 낙관적·긍정적 해석 역시 구원 문제를 중시하는 바울의 신학적 입장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는 결혼, 이혼과 독신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모범적 삶을 통한 ‘선교 전략’(MacDonald)이나 ‘선교적 태도’(Jeremias)를 말하는 것은 바울 당시보다는 후대의 상황에 더 적합해 보이지만(벧전 3:1-2), 바울은 분명히 그 단초를

74) Jeremias, *Die Kindertaufe in den ersten vier Jahrhunderten*, 52.

제공하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자다움 혹은 거룩함은 구원의 출발점이자 거룩함의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 7:12-16의 진술 속에 나타나는 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는 그런 점에서 ‘가정’의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고 즐흥이나 혼밥을 이야기하며 싱글 라이프를 선언하거나 인구 절벽을 논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두 가지 점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기초와 정당성을 제시해준다. 하나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인 교회의 교회다움이 개별 신자의 거룩함에서, 그리고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의 실천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신자다움과 시민다움의 구분이 실제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르쳐준다.⁷⁵⁾ 다른 하나는 교회의 선교 이해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선교 개념에 대한 지리적 차원의 규정과 프로그램 중심의 선교관 지향이다.⁷⁶⁾ 그러나 선교는 더 이상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간에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한다.”⁷⁷⁾ 그렇다면 ‘전염 매개체’로서의 개별 그리스도인의 신자다움 혹은 거룩함이야말로 선교의 출발점이자 내용이다. 오늘날에는 다소 순진하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가치와 유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바울의 확신을 간과한 채 외부적, 비본질적 요소들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75) 임성빈은 그의 논문(“기독교가 한국의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 현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23 [2005], 223-265)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고찰한 후 재확인해야 할 한국교회의 신학적 기초들로 창조신앙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 청지기로서의 인간과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재평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들은 -그가 결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자 됨에 근거를 두고 있다.

76)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0 (2012), 96.

77)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108.

<주제어>

구원론/구원론적, 낙관주의/낙관주의적, 고린도 교회, 혼합 결혼, 그리스도인/비그리스도인, 가정

<Key words>

soteriology/soteriological, optimism/optimistic, Korinthian church, mixed marriage, Christian/non-Christian, family

* 접수일 2019년 7월 29일, 수정일 2019년 9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30일

참고문헌

-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Aland, Barbara,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Revised Edition, Institute for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 Münster/Westphalia under the direction of Holger Strutwolf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김지철, 『고린도전서』,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관임, “바울은 이혼을 허락하였는가?(고전 7:1-16 연구),”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7 (2004), 34-46.
- 문병구, “종말론적 실존의 결혼과 성에 관한 질서: 고전 7장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한국신학논총』 6 (2007), 35-50.
- 민중서립 편집국 편,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5판, 서울: 민중서립, 2001.
- 유은걸, “고린도전서의 종말론적 구원,” 『신약논단』 25 (2018), 769-794.
- 이준호, “독신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고전 7:6-16),” 『신약연구』 9 (2010), 227-249.
- 임성빈, “기독교가 한국의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 현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23 (2005), 223-265.
- 장홍길, “신약 성경에서의 이혼: 예수와 바울의 입장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16 (2000), 154-174.
- 최혜영, “신약성서 안에서의 여성과 가정: 혈연가족을 넘어 하느님의 새 가정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50 (2004), 261-286.
-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0 (2012), 75-115.
- Balz, Horst, “*ἄγιος·ἀγιάζω·ἁγιασμός·ἁγιότης·ἁγιωσύνη*,”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1980), 38-48.
- Barrett, C. K.,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옮김, 6판, 국제성서주석 35, 서울·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 Billerbeck, Paul and Strack, Hermann L.,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 aus Talmud und Midrasch*, Vol. 3: Die Briefe des Neuen Testament und die Offenbarung Johannis, 6th ed.,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75.
- Blass, Friedrich and Debrunner, Albert,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Bearbeitet von Friedrich Rehkopf, 16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Bruce, Frederick F., *1 and 2 Corinthian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 Burchard, Christoph, "Ei nach einem Ausdruck des Wissens oder Nichtwissens: Joh 9:25, Act 19:2, I Cor 1:16; 7:16," *ZNW* 52 (1961), 73-82.
- Collins, Raymond F., *First Corinthians*, Sacra Pagina Series 7,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 Conzelmann, Hans,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11th ed., KE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 Cook III, William F., "When Only One Spouse Believes: Hope for Christian Women in Mixed Marriages," *JDFM* 2:2 (2012), 14-20.
- Elliott, James K., "Paul's Teaching on Marriage in 1 Corinthians: Some Problems Considered," *NTS* 19 (1973), 219-225.
- Fascher, Erich,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1. Teil: Einführung und Auslegung der Kapitel 1-7, 3rd ed., ThHNT 7/1,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4.
- Gillihan, Yonder M., "Jewish Laws on Illicit Marriage, the Defilement of Offspring, and the Holiness of the Temple: A New Halakic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7:14," *JBL* 121 (2002), 711-744.
- Hodge, Caroline J., "Married to an Unbeliever: Households, Hierarchies, and Holiness in 1 Corinthians 7:12-16," *HTR* 103 (2010), 1-25.
- Jeremias, Joachim, "Die missionarische Aufgabe in der Mischehe (1. Kor. 7,16)," Joachim Jeremias, *Abba: Studien zur neu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Zeitgeschichte: Mit 4 Bildtafeln*,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66, 292-298.
- _____, *Die Kindertaufe in den ersten vier Jahrhunder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8.
- Klauck, Hans-Josef, *1. Korintherbrief*. NEB.NT 7, Würzburg: Echter Verlag, 1984.
- Kubo, Sakae, "I Corinthians VII,16: Optimistic or Pessimistic?" *NTS* 24 (1978), 539-544.
- Lang, Friedrich, *Die Briefe an die Korinther*, 17th ed. N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 Lietzmann, Hans, *An die Korinther 1/2*, Ergänzt von W. G. Kümmel, 5th ed., HNT 9, Tübingen: J. C. B. Mohr, 1969.
- Lindemann, Andreas, *Der erste Korintherbrief*, HNT 9,1,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MacDonald, Margaret Y., *Early Christian Women and Pagan Opinion: The Power of the Hysterical Wo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Park, Sung-Ho, *Stellvertretung Jesu Christi im Gericht: Studien zum Verhältnis von Stellvertretung und Kreuzestod Jesu bei Paulus*, WMANT 1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15.
- Pokorný, Petr and Heckel, Ulrich,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Seine Literatur und Theologie im Überblick*, UTB 2798,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Robertson, Archibald and Plummer, Alfre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2nd ed., ICC, Edinburgh: T. & T. Clark, 1978; org. ed. 1914.
- Schrage, Wolfgang,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2. Teilband: 1Kor 6,12-11,16. EKK VII/2, Solothurn and Düsseldorf: Benziger Verl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 Stegemann, Wolfgang and Stegemann, Ekkehard W.,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

회사: 『고대 지중해 세계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손성현, 김관임 역, 서울: 동연, 2008.

Urban, Christina, “Die Rollen der Familienmitglieder,” Klaus Scherberich, ed., *Neues Testament und Antike Kultur*, Vol. 2: Familie - Gesellschaft - Wirtschaf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4, 17-21.

Weiss, Johannes, *Der erste Korintherbrief*, 9th ed., KEK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org. ed. 1910.

<초록>

바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

-고린도전서 7:12-16을 중심으로-

박성호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부가 문제시될 수 있는 곳에서 일관되게 구원의 확실성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바울의 구원론은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적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이러한 확신이 구원의 문제가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비구원론적 맥락에서도 그의 논증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답을 주는 형식으로 결혼, 이혼과 독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7:12-16은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부부관계(‘혼합 결혼’)에 대한 지침인데, 거기서 바울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지침에 대한 두 번에 걸친 근거 설명이다. 바로 그 안에 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 배우자 역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14절), 더 나아가 그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15c-16절) 상대가 먼저 결별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15a절)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며(15c절)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내는 일이다(17, 20, 24절). 이처럼 바울의 구원론적 낙관주의라는 기초 위에서 있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선교 이해를 새롭게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본’을 다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Abstract>

The Soteriological Optimism of Paul: Focusing on 1 Corinthians 7:12-16

Visiting prof. Sung-Ho Par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Paul's soteriology is fundamentally optimistic in the sense that it consistently adheres to the certainty of salvation where Christian salvation can be questioned. What is remarkable is that his conviction is the basis of his argument in the non-soteriological context in which the question of salvation is not addressed as a central theme. In 1 Corinthians 7, Paul explains marriage, divorce, and celibacy in the form of answering the questions raised in the Corinthian church. In particular, 7:12-16 is a guideline on marriage between persons of different religions ('mixed marriage'), where Paul says that unless a non-Christian spouse first asks for a divorce, a Christian spouse should not claim divorce first. What we are noticing here is the two-fold rationale for this guideline. Therein lies his soteriological optimism. Because the holiness of a Christian has already made a non-Christian spouse holy (v.14), and can further bring his/her spouse to salvation (vv.15c-16), - if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see v.15a), where the opponent first requires separation, - maintaining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Christian side is the peace that God desires (v.15c) and his/her own keeping the calling (v.17, 20, 24). In a time of reflecting on Church's social influence and understanding of mission, the fact that the holiness of the Christian individual, which is based on Paul's salvation optimism,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alvation of others, should be the 'fundamental' that we have missed.